

웃손당은 금백조  
 셋손당은 세맹조.  
 매알손당 소천국  
 아들 훈술 적이  
 어머님 좇가슴  
 뭉직은 죄목  
 두술 적인  
 아바님 삼각쉬 뽑은 죄목.  
 시술 적인  
 할오바님 통설대  
 가달 냉긴 죄목  
 닉술 적인  
 할마님 말?라  
 것대답흔 죄목.  
 다솻살 적인  
 동승에 싸와 불효.  
 으솻술 적에 일가의 불효.  
 일곱술엔 동닛 존장 불효  
 무쇠석합 차 놓고  
 일곱술 난 도령님을  
 석합 쏘굽에 들여앗저  
 삼백 일은 으듭 즈물쇠 체와  
 말캐미로  
 요왕국에 귀양을 보내여,  
 물 아래도 삼년.  
 물 위이도 삼년.  
 연삼년을 살아  
 요왕황제의 무우나무  
 젓가지에 걸어지고  
 밤중 야삼경은  
 마당 너구리가 좇거  
 요왕황제국  
 “큰꼴년아 나고 보라  
 뭘 소리냐?”  
 “뱀도 송송 들도 송송

물절 소리 사랑사랑  
저 걸 보고 주꿍네다.”  
“셋똥년아 나고 보라  
뭇을 보고 좇꾸느냐?  
“물절소리 사랑사랑  
담고망도 바롱바롱  
저 걸 보고 좇꿍네다.”  
“신중아기 나고 보라  
뭇을 보고 좇꾸느냐?”  
“물절 소리 사랑사랑  
무나무 젓가지에  
무쇠설갑이 걸어지고  
석갑 쏘곶에서  
글소리가 나니  
저 걸 보고 주꿍네다.”  
“큰똥년아 누리우라.”  
못내 누리와.  
“셋똥년아 누리우라.”  
못내누리와.  
신중아기 누리우라.”  
신중아기 올라가  
무우남 상가지로  
젓가지질 받아  
삼시번을 흥글치니  
석합이 누리와.  
“큰똥년아 문을 개문허라.”  
못을립네다.  
“셋똥년아 문을리라.”  
“저도 못을리겟습네다.”  
“신중아기야 느가 문을 올리라.”  
우뢰 곱은 소리에  
백력 곱이 둘러치명  
가명 오명 삼시번을  
설갑을 둘러치니  
설갑문이 올라져.  
선관도서가 앓았구나.  
삼우풍덕하고  
모개각띠혀

아름 ㄱ득 금책이여,  
좀이 ㄱ득 서붓이여.  
삼천강 배릿돌에  
일천지년 먹을 곁고  
마흔으뜸 상단골에  
상백문셀 잡고  
설은으뜸 중단골에  
중백문셀 잡고.  
쭈물으뜸 하단골엔  
하백문셀 곁리잡고  
선관도서님은  
봉애눈을 브릅뜨고  
삼각소를 거슬리어,  
요왕황제님이  
“구신입네까?  
생인입네까?”  
“구신은 아닙네다.  
알손당의 말쑥아들롭서  
부미조상의 불효가 나  
성제간  
일가방답이 불효가 나  
요왕황제국으로  
구양을 오랏습네다.”  
“양반의 후례로다.  
큰똥 방으로 들어갑서.”  
눈도 거도 아니트고,  
“거건, 셋똥 방으로 들어갑서.”  
눈도 거도 아니트고,  
“신중아기 방으로 들어갑서.”  
설은으뜸 니빠디가  
허우덩썩 웃이멍 들어가니,  
각서출물 대전상을  
낙는듯이 출려놓고  
그는듯이 들러다 놓니,  
수도 제두 아니받아.  
훈자리만 매풀어.  
훈품에 줌자는 법도 엇고  
히얏법이 엇어지니

연샘일이 되여도  
처부님 처모님에  
선신하는 배도 엇고.  
신중부인이 말을 하되.  
“아바님 어머님전이  
설룬 성님들 놓아두고  
나는 저런 부체간을  
무을 적이  
추물식상을 아니받읍네다.  
훈품에 즘잔 히얏법도  
엇어지고  
연샘일이 되여도  
처부님 처모님에  
선신하는 배 엇어.  
저런 도고 높은 사월  
하십디가?”  
“사위 손을 불르라.”  
사위 손을 불러다 놓고,  
“내 조식이 행실이 나쁘냐?  
인물이 부작하냐?  
처제가 부작하냐?  
어째 연샘일이 되여도  
처부님 처모님에  
선신하는 법이 엇이니?  
추물식상도 아니받니 하니,  
훈품에 히얏법도 엇어지고!”  
부름운님이 말을 하되.  
“멧 해 멧 년을 배고프니  
처부님 처모님 생각도  
엇입네다.  
가속 생각도 엇습네다.”  
“게난, 저 국이선  
뭇을 먹고 살았느냐?”  
“이런 대국이 오란 보니.  
소국 음식만 못습네다.  
저는 소국이 살아도  
초잔은 청감쥐.  
이잔은 진청취

제삼잔은 주소쥬.  
쇠 잡아도 젓물제  
독 잡아도 젓물제.  
산 독에 비제 틀고  
죽은 독에 옥조 불리고  
백매, 백돌레, 백시리.  
안으로 열시왕  
밖겼드로 삼시왕  
천지천왕을 신수프고  
밤인 방광, 낮인 영청  
신정국 대두퇴로  
춤으로 받읍네다.”  
황제국이 말을 하되.  
“나 기강을 ?지고  
사위 손을 못대접하리야.”  
안으로 열시왕  
밖겼디로 삼시왕  
천지천왕을 신수프고  
각서추물 대전상을 출려  
밤인 방광 낮인 영청  
맹진국을 지율리고  
연삼년을 사위 손을 대접하니  
동창궐도 비고  
서창궐도 비고  
황제국이 말을 하되.  
“신중아기야,  
늘로 얻은 서방이니  
돈앙그네 어서 떠나라.”  
신중부인이 말을 하되,  
“낭군님아.  
저 국이 어명 아방 엇습네까?”  
“씻지마는 물 막은 섬중이라  
갈 수라 있느냐?”  
요왕 패도선을 내여준다.  
요왕 황제국이  
신중부인?라 말을 하되.  
“예펜의 종부라 훈 것이  
열다섯 시오세 이하는

내 조상을 직히고  
열다섯 시오세가 넘으면  
놈의 조상을 직히는 법이로다.  
너의 낭군의 조를  
조창 가라.”  
신중부인이 말을 하되,  
“저는 대국이 살아,  
그래 방이도 못하여보고  
짓임도 못들어보고  
소국 가민 뵈을 하여  
살네까?”  
아바님의 청춤치  
어머님의 백춤치를 내여주명  
말을 하되,  
“주맹기코를 배르씨민  
원 눈에 청굴리  
낙단 눈에 흑굴리  
보온안개 족지발 너팔.  
눈에 보이를 싸 주어  
잘 대접을 시기거들랑  
청굴리, 눈아피  
다 걷어주느니라.”  
성님네는 열두 부스럼질  
내여주명.  
“이 코를 배리씨민  
만민단골에 태열태두  
종기종창, 십이상감창.  
연주나력, 도리버짐, 군버즘  
물비리 갱비리  
부들라지, 부양부럼.  
열두 승험을 주영  
만민단골에 상을 받으라.  
삼싱도에 들어사건  
기경, 반경, 경끼, 경풍.  
격심, 돌림, 곳불, 손햄을 주영.  
인정을 받으라.”  
부부간이 패두선을 둘러타고  
훈쌀을 띄우난 산설이 그차지고

두쌀을 띄우난 물설이 끊어져.  
금시상을 나오라  
말캐미로 배를 부쳐 녹리고  
알손당에 들어가니  
늦인득이정하님이  
“물지레 간 보난  
요왕황제도 죽으라고 날려분  
상제님이 살아오셨습네다.”  
아방 어명왕이 선신을 시기니  
“누게가 밥을 주고  
누게가 옷을 주고  
살아 올 리가 있겠느냐?  
동문, 서문, 남문을 잡으라.”  
브름운님이  
주맹기코를 배리씨고 시난  
어명 아방 눈에  
콩깍지가 든간 흐고  
눈을 굴려 간다.  
아바님 어머님 말을 흐되.  
“아들이 실령이거들랑  
눈아필 걷어도라.”  
주맹기코를 호르씨니  
눈아필 걷습네다.  
문을 열러  
브름운님이  
아바님 어머님에  
선신문안을 하니,  
아바님이 말을 흐되,  
어머님이 말을 흐되,  
“어떻흐연 살아 오란디?”  
“요왕황제국이 들어가  
신중부인 절인 부친 무어  
금시상이 들고 나왔습네다.”  
“게난 어디 시니?”  
“신중부인은 올래에 있습네다.”  
“돌앙 들어오거라.”  
들어가니  
씨아바님 씨어머님에

선신문안을 하여  
신중부인은 아길 일곱을  
찾듯 7치 배여놓고,  
아방 어명이 말을 하되,  
“할로영산은 도영주산을 올라사  
대강녹, 소강녹, 대돛, 소돛,  
잡아다가  
석돌 열흘 백일  
호문연 대잔칠 시켜.”  
아바님 어머님이 말을 하되,  
“어릴 적 짓카른 아기라  
흔디 살 수 웃다.  
토산 서당팔디 좌정하여  
마흔으뜸 상단골  
설은으뜸 중단골  
쭈물으뜸 하단골  
굴리잡아  
삼월 초일되, 예릴되, 쭈무일되.  
불유월 초일리, 예릴되, 쭈무일되  
7슬 석돌, 당하건  
삼구월 초일되, 예일되, 쭈무일되  
동상삭이 당하건  
동짓돌 초일되, 예릴되, 쭈무일되  
만민단골에 서천미련 받으라.”  
브름운님과 신중부인님이 짓갈라.  
아바님 어머님에 하직하여  
군문밖껏 나사니  
신중부인이 말을 하되.  
“낭군님이랑그네  
서당팔딜 가시면  
날랑 할로영산 유산 구경을 하고  
가오리다.”  
신중부인은 할로영산을 올라 사  
해구무니, 들구무니, 오백장군.  
영실목, 백록담을 구경하고  
큰장오리, 족은장오리, 태역장오리  
구경을 하니  
칠년 한기가 되고

물이 었어.  
안은 무르고  
도찌자국에 보니, 물이 이시니  
뺨래기로 물을 빨아먹어.  
도찌술이 콧궁기레 드니  
산쟁이 미싱불로 그시리난  
먹은간 썬간 존경내가 난  
서당팔디 놀려드니  
브름운님은  
마흔으뜸 상단골  
설은으뜸 중단골  
쑤물으뜸 하단골에  
서천미련을 받암구나.  
“대부인이 오는디 부정하다.”  
“부정한 일 었습네다.  
도찌자국에 물이 이시니  
뺨래기로 물을 빨아먹어  
돛술이 콧궁기레 드난  
미싱불로 기시리난  
먹은 간, 썬 간.  
존경내가 납니다.”  
“나를 생각하여신우제  
대부인이 부정한 일  
왜 하리요?”  
남도 물도 었인  
마라도 가다귀섬으로  
귀양을 마련하여  
브름운님은 저산국똥님애기  
새로금상 훗첩을 하여  
들어오란  
“저만흔 남인이  
전처가 으시리까?”  
전처는 행실이 괴썸하니  
가다귀섬으로  
귀양을 보내엿습네다.”  
“전처 구박하민  
율법으로 다시립네다.  
예진 머리, 신은 신발.

입은 이복에  
저도 가리다.  
예즈라 훈 것은  
흔를 열번 죽을 일도 헉곡  
살 일도 흡네다.  
그만썩 훈 일에  
성님을 귀양을 보내여시니  
나도 가오리다.”  
브름운님 말을 헉되.  
“석들 열흘 백일 되민  
귀양 풀려 오리외다.”  
맹문대짐을 헉여.  
석들 열흘 백일이 되여도  
귀양을 아니풀려오니  
새로금상이 말을 헉되.  
“낭군님아, 이나 어찌 헉오리까?”  
“어침! 몽롱헉였노라.  
게멘, 삼만관속을 쥌히라.”  
새로금상이 말을 헉되.  
“낭군님이 가쟁 헉민  
불란흡네다.  
소녀가 가오리다.”  
지성기 일곱. 삼보살 일곱.  
걸래 일곱 거느리고  
패두선은 둘러타고  
절 우으로 배를 붙여  
마라도 서뿔을 가 보니,  
신중부인이 개삼성이 느리고  
애기 일곱으로 환싱을 헉니,  
“설룬 성님!  
귀양풀리게 왔습네다.”  
“누게라 되느냐?”  
새로 온 금상이 됩네다.  
후처로 오랐습네다.”  
“그만썩 훈 일에  
귀양을 보내여시니  
죽어도 아니갈로다.”  
새로 금상이 말을 헉되.

“예주는 지아잣법이 있습네다.  
나 인정을 뵈  
옵서, 가게.”  
“걸랑 기영 허라.”  
삼보살 일곱, 지성기 일곱  
걸레 일곱 거느려,  
아기덜을 문딱 업어.  
패두선을 둘러타고  
모실개 알드르  
맬개로 오라  
배를 붙여,  
“설룬 성님!  
애기들 낱명  
석들 열흘 백일을 살젠 허난.  
입이 무릇 아니굽보네까?  
애기 허나 업어? 정  
성님이랑그네  
밤이랑 연불  
낮인 통조 소리로  
개보말 잡아먹으멍  
토산 서당팻을 가옵시다  
아기들은 내가 업고  
웃한길로 가오리다.”  
신중부인은 번내 하강물로  
연불신내 옥통제 맞입네다.  
난드르 조순드리로  
연불신내 옥통제 맞입네다.  
열리 당개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중문이 배린포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큰개물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월평동 동오물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강정 세배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법환이 막숙으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서귀포 수전개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불목리 선양 앞으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쇠돈 소금막으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망장이 연불신내 맞입네다.  
공천포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퇴미 상코지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제산포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풀개 검은코지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서당팔디 가니  
연불 하니, 신내 하니가  
떨어져  
새로 금상은  
산방 뒤에 북름잔밭  
오란 보난.  
흰 삼동, 검은 삼동  
익어시니  
애기를 풀어놓고  
삼동 타 먹단 보난  
해는 일락서산 일모하고  
걸추릿선비가,  
애기덜은 하영 날 법 하니  
인물이 좋으니,  
심젠 하여가난  
물을 둘러타고  
애기덜은 물 우이  
다 좇어 놓완.  
서당팔디로 오란  
“성님, 애기 맡읍서.”  
하니 두개…… 세여간다,  
애기가 으쓷개 매긴다.  
“애기 하니 떨어져시니  
범의 입에 갔는가?  
곰의 입에 갔는가?”

다심아방 눈물 흘럼는가?  
다심어멍 놀랄 외염신가?”  
새로금상이 말을 하되.  
“설룬 성님아.  
내 무심을 그정  
경홀 리가 있겠수가?”  
새로금상이  
예복방이 놀려 들어  
예복입성 다 벗어두고  
남복방이 놀려들어  
남복입성 출려.  
대정 대매 둘러타고  
산방구절 브름잔발디  
애기 츠지레 간 보난.  
삼동냥게 애긴 눈을 소와,  
비새 곶이 울엄구나.  
“애기야!”  
낙리와 놓고  
물 우티 태와 앓전  
서당발디 오라.  
“설룬 성님, 애기 말씀서.”  
본대 빌해름광  
희맹이 궂인 애기  
큰어멍 던데떡 주어도  
소리 못내그치고  
족은어멍 좀매떡 주어도  
소리 못내그치고  
아바님이 먹을 진지  
강답에 강나록  
낮인 닷말,  
어머님이 먹을 진지  
무답에 무나록  
이여방애 저가되  
소릴 못내그쳐.  
“이 애기는 부려  
죇멕임징이여,  
죇개임징이여,  
정잇아장 삼삼음징이여”

소리 못내그쳐.  
대정아장 미정  
득심정 헛되  
소리 못내그쳐.  
“던데정, 조매기정.  
아왜기정 헛여가되  
소리 못내그칩네다.  
훈담 넘어  
외돌괴로 좌정헛여  
유월 나건 초일되, 예일되  
쑤무일되  
만민단골에 서천미련 받곡  
동짓들이 나사건  
초일되, 예릴되, 쑤무일되  
만민단골에 서천미련  
상을 받아.

제일 3월 7일, 17일, 27일  
6월 7일, 17일, 27일  
9월 7일, 17일, 27일  
11월 7일, 17일, 27일

<서귀읍 서귀리 남무 56세 박생옥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30-637.